

# ‘정권안정’ 與, 42% vs ‘심판’ 野, 43%... 오차범위 내 접전

〈리얼미터 조사 결과〉

## 총선 D-29 여론조사 비교

리얼미터, 국민의 힘 지지율 하락 양당간 차이 1.2%포인트로 좁혀 꺾임에선 국민의힘이 6% 앞서가 조국혁신당 첫 포함돼 6% 지지율

4·10 총선이 30일 남은 11일, ‘정권 심판’을 내세우는 더불어민주당과 ‘정권 지원’을 기치로 세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에너지경제신문 의뢰, 지난 7~8일 조사, 표본오차 ± 3.1%포인트)의 정당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43.1%, 국민의힘은 41.9%로 오차 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한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상승하면서 양당 간 차이는 1.2%포인트로 좁혀졌다. 이는 이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46.7%, 민주당이 39.1%가 나온 것과는 비교되는 결과다.

이날 조사에서 개혁신당은 3.1%, 새로운미래 1.7%, 녹색정의당 1.5%, 진보당 1.4%, 새진보연합 0.6%, 기타정당 2.2%, 무당층은 4.6%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70세 이상(64.0%), 60대(51.7%), 18~29세(42.0%) 등에서 강세를 보였고, 민주당은 40대(59.3%), 50대(52.6%) 30대(45.9%) 등에서 지지도가 높았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 앞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에 선거일을 알리는 알림판이 세워져 있다. /뉴스시스

하지만 지난 8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지난 5~7일, 표본오차 ± 3.1%포인트)는 리얼미터와는 다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 결과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민주당 31%로 집계됐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눈여겨 볼 점은 조국혁신당이 처음으로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은 6%,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은 각각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19%였다.

또 같은 조사에서 ‘이번 제22대 총선에서 여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정부

지원론)는 응답은 39%, ‘민주당이 다수 당선돼야 한다’(정부 견제론)는 응답은 35%였다. ‘제3지대가 다수당이 돼야 한다’는 응답은 16%였다.

다만 질문을 달리했을 때,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범야권을 의미)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견제론)는 51%,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이 많이 당선돼야 한다’(정부 지원론)는 응답은 35%였다. 현재까지 정부 견제론이 더 앞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례대표 정당 투표의향은 국민의미래(국민의힘 비례정당)가 37%로 가장 높았고, 더불어민주당연합(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 25%, 조국혁신당 15%, 개혁신당 5%, 녹색정의당 2%, 새로운미래 2%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가 며칠 사이 상반된 결과가 나온 이유는 무엇인지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총선을 30일 남겨놓고 민주당 우세였던 여론에 반전이 일어나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에 더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채 교수는 “민주당의 ‘비명횡사’ 공천이 굉장한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쪽으로 많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반면,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본지와 통화에서 “특정 정당이 여론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분석하면서 “다만 정당 지지도는 여론조사 방법(전화면접·ARS)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조국혁신당을 찍는 이들은 지역구에서 민주당을 찍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작동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박상병 평론가는 “정권 심판론의 강도는 아직 알 수 없으나 이번 선거에서 야당의 핵심 깃발은 정권 심판론이 될 것”이라며 “강도가 셀 것인가, 약한 것인가는 앞으로 한 달 동안 변수가 남아 있지 않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대세는 정권 심판론이 우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채진원 교수는 “민주당은 중

간평가니까 윤석열 정권 심판을 언급하겠지만, 지지층은 결집이 됐고 문제는 중도층”이라며 “중도층이 봤을 때 ‘윤석열 독재’라는 이야기가 와닿을지, 눈앞에서 보이는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와닿을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조국혁신당이 주목받을수록 ‘조국 사태’도 다시 각인될 것이라며 “이재명과 조국의 연합이나, 이재명과 친북 세력의 연합이라든가 하는 것이 막판 ‘트리거’로 반감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의 돌풍에 대해서도 다른 예측이 나왔다. 박상병 평론가는 “조국혁신당이 뜨면(민주당 지지층들은) 지역구 후보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정당은 조국혁신당을 찍는 ‘교차 투표’가 일어날 것”이라며 “조국신당이 뜨면 민주당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등이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채진원 교수는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면 민주당이 약영향을 받는다. 단순히 비례대표 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재명 체제에 대한 결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에서도 영향력이 퇴조하게 되면 많은 지지층이 이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예진·박태홍 기자 syj@metroseoul.co.kr

## 尹 “강원, 데이터·바이오 첨단산업 기지로”

‘강원도의 힘!’ 민생토론회 333프로젝트 조기 성공 뒷받침 바이오헬스 산업 중심으로 육성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안전을 지켜온 강원특별자치도의 주력 산업을 데이터·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산업 기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1일 강원도청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도의 힘!’이라는 주제로 열아홉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강원도에 더 이상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의 발전 전략으로 ▲첨단산업 기지화 ▲고품격 산악관광 육성 ▲의료 취약 및 물 부족 등 민생 애로 해결 등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첨단산업 기지화와 관련해 “강원도의 군사시설들은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버팀목이지만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고, 울창한 산림, 댐, 호수는 수도권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었지만 이에 따른 제약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강원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강력하게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나해 출범한 강원특별자치도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담아 강원 경제 발전할 수 있는 경제특별자치도 그런 의미에서 출범하게 됐고 저도 지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춘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도의 힘!’ 주제로 열린 열아홉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시스

난 출범식에서 지역발전을 옥죄는 규제를 혁신하고 강원도에 첨단산업과 관광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하늘이 두 쪽 나도 약속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강원도의 주력산업을 디지털·바이오 기반의 첨단산업으로 재편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첨단산업 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강원도 내 각 시·군별로 특화된 첨단산업 구상을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춘천에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 ‘데이터산업 수도’로 만들고,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바이오헬스 산업을 중점 육성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는 소양강댐 물을 냉각수로 이용해 춘천지역에 모여있는 데이터센터의 열을 식히고, 그 과정

에서 데워진 물을 스마트팜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산업단지다.

윤 대통령은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와 관련해 “이를 통해 7300여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디지털 산업 종사자 3만, 디지털기업 3000개, 매출 300% 성장을 이루는 ‘333프로젝트’가 조기에 성공하도록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올해 강원이 보건·의료 데이터 ‘글로벌 혁신 특구 지역’으로 지정된 것을 언급하며 데이터산업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산업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간기업에도 토지 수용과 토지 개발권을 부여하는 ‘춘천 기업혁신파크’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동해와 삼척을 미래 수소에너지의 거점으로, 강릉은 2600억원을 투입해 천연물바이오 국가산단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강원도의 자연자원과 올림픽 자원을 활용해 산악관광 메카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강원도 1호 공약이자 40년의 숙원이었던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가 작년에 착공돼 산악관광의 날개를 달게 됐다”며 “2026년에 본격 운영되면 1300억 이상의 경제효과를 지역경제에 줄 것이다. 앞으로 지역주민이 원하는 곳에 케이블카를 추가로 더 건설하겠다”고 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 “소양강댐 심층수, 데이터센터 전력 감축”

강원 춘천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국내 1호, 사업비 3600억 투자

강원 춘천에 국내 첫 수열에너지 클러스터(산업집적단지)가 들어선다. 연평균 섭씨 7도의 냉기를 유지하는 소양강댐 심층수 수열에너지를 활용해 춘천지역에 모여 있는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데다, 냉방 사용 후 주변 스마트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수열에너지란 해수 또는 하천수에 저장된 열에너지를 뜻한다. 정부는 오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총 36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9번째 민생토론회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도의 힘’에서 강원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 춘천을 데이터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춘천에 위치한 강원도청에서 개최됐으며, 수열에너지 클러스터 착공식도 춘천 일대에서 열렸다.

환경부는 “춘천시 동면 일대에 81만 6000㎡ 규모의 국내 첫 수열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할 것”이라며 “이는 소양강댐의 차가운 심층수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냉방과 스마트팜 첨단농업단지의 난방을 지원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사업비 3600억 원을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고, 대

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미래를 견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춘천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선도지구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20년 7월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27년까지 클러스터 조성을 완료하는 포로젝트이다.

최근 인공지능(AI) 보급 확산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쉼없이 서버를 가동해야 한다. 이에 따라 많은 열이 발생해 냉방에 많은 전력이 소모된다.

소양강댐 심층수의 수열에너지를 활용하면 전력소비가 크게 줄어들뿐더러 수력발전·수상태양광을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에 녹색산업으로서의 가치도 있다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또 차가운 소양강댐 용수를 데이터센터 냉방에 사용하면 물 온도가 7도 내외에서 12도까지 올라간다. 이를 스마트팜 난방에 다시 사용하게 된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춘천봄내체육관에서 열린 집적단지 착공식에서 “수열에너지 기반의 친환경 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성공의 본보기로 만들어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환경부는 강원 영동지역 물 부족 해결을 위해 강릉 연곡면에 지하수를 모으는 지하 저류댐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